탈 맑스주의, 위기 극복인가 회피인가

기획— 맑스주의의 위기와 탈 맑스주의를 둘러싼 논쟁

> 탈맑스주의의 위기가 논의되는 시기이다.
> 맑스주의의 위기의 대안으로 제시된 탈마르크스주의를 아울러 위기로 치닫고 있는 다시 근원적인 마르크스로 돌아가자는 움직임.
> 이들의 이념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표류하는 혼란의 시기이다.
> 이런 가운데 마르크스 이념의 재정립을 위한 계간지가 창간되었다.
> 순수한 마르크스주의의 위기, 극복과 대안을 위한하기 위한 '이론' 지와, 문화이론과 역사적 유물론을 접목시켜 새로운 문화이론을 모색하는 '문화과학' 지가 그것이다.
> 본보에서는 이 두 계간지와 함께 부활 최근의 마르크스주의 위기와 탈마르크스주의를 둘러싼 논쟁을 소개한다.
> 현재의 마르크스주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편집자 註)

20여년 전 프랑스의 유명한 마르크스주의자 루이 알튀세르는,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를 분석하고 이론의 우회를 통해 마르크스주의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 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르크스주의와 탈마르크스주의 사이의 논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진보학계의 몇몇 학자들을 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는 '이론' 과 '문화과학' 이 창간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알튀세르의 그루를 연상케 한다.

먼저 탈마르크스주의의 마르크스주의 위기와 그 타개책은 무엇인가? 라클라우/무페의 탈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위기의 근원을 마르크스주의 그 자체, 즉 마르크스주의의 정치적, 이론적 역사 전체에서 찾는다. 그들의 첫번째 과제는 마르크스주의의 전 역사로부터, 좀 더 정확하게는 이른바 정통마르크스주의에서 벗어나 있거나 그것에 의해 배제되었던 이론들로부터 담화적 헤게모니이론의 편린들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그러한 편린들은, 그들에 따르면, 정통마르크스주의와 달리 계급투쟁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의 근본적인 가정들의 비현실성을 직시하고 계급투쟁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의 근본원인 가정들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이론화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세우려는 정당한 노력들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의 그러한 정당한 노력들이 편린들로만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들이 여전히 역사유물론이라는 결정론적이고 또다 또는 계급환원론적이며 본질주의적인 선험적 가정에 매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결정론적'이고 '토대 또는 계급환원론적'이란 하나의 역사적 사회구성체 안에서 각 요소들 사이의 결정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물질적 생산 및 재생산양식의 제일의성(primacy)을 의미한다. 따라서 라클라우/무페의 탈마르크스주의는 노동계급을 최고의 중심에 놓은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적인 이념체계와 계급전략을 폐기하고 물가의, 즉 동등한 가치(지위)를 갖는 각 부문별, 지역별 운동을 수평적으로 접합시키는 급진적 민주주의의 헤게모니전략을 제안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한 탈마르크스주의자는 역시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의 '비판적 보존과 전환'을 여러차례 요청하고 있지만(이병천, '포스트맑스주의와 한국사회', 학술단체협의회 심포지움자료 참조) 그 논의에서, 라클라우/무페에게서와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의 대부분의 이론적 성과는 비판, 거부되고 있으며 정치경제학비판의 비'판적 보존과 전환이라는 모호한 요청이 주요한 논지를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포스트포드주의 또는 조정이론 등이 말하는 현재자본주의의 미세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서 탈마르크스주의가 유용하다는 것이 요지려 중심된 논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기산업사회의 문제은 아직 희미하기만 할 뿐이다.

라클라우/무페의 탈마르크스주의를 관심의게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실천적 대상에 관한 사유의 인식적 전유(알튀세르)라는 전통적인 인식론의 틀을 깨뜨리고 담화구성체라는 독특한 지평에서 구상되는 '사회적인 것'에 관한 이론이나 담화이론이라는 그들의 독특한 방법론이 아니라, 급진적 민주주의 기획이라는 '사회주의적' 헤게모니전략의 유용성에 있을 수도 있다.

등가의, 즉 동등한 가치(지위)를 갖는 각 부문별, 지역별 운동들의 수평적 연대란, 라클라우/무페에 따르면 곧 접합이다. 그것은 이런 정치적 효과를 가질 것인가? 각 부문별, 지역별 운동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담화구성체라는 독특한 이론틀 또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들에게 가장 특징적인 것은 '탈구조' 이후의 이론의 해체경향에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담화적인 것'들의 '접합'으로 이루어지는 '담화구성체'라는 독특한 (담화적) 세계를 구성한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는 이론적 위기만 읽어서는 안된다. 마르크스주의의 위기의 제일 요소는 당면한 정치적 위기이다.

다른 한편으로 알튀세르는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위기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스탈린체제를 비판하고 있지만 그 위기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스탈린 비판으로도, 그리고 고전으로 되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는 마르크스나 레닌의 왜곡이나 순수한 사회주의로부터의 일탈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스탈린 비판으로만 역고 삼켜는, 그리고 기껏해야 레닌으로 돌아가자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초기발상의 '순진함'을 확인하게 된다.) 스탈린비판을 위한 이론적 우회의 고트머리에서 알튀세르가 확인한 것은 20세기 후반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마르크스나 레닌의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에게 이론의 정체는 정치적 정책의 상징이자 일면이었다.

그리고 '자본론 읽기'의 이론적 작업에서 시도되는 사회구성체론은 하나의 역사적 사회에 관한 전체적 또는 총체적 일반이론의 지향으로, 그리고 정치와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사회의 모든 부문들간의, 그리고 그러한 각 부문들과 사회구성체 전체사이의 복잡한 연관을 해명하기 위한 이론적 시도로 나타난다. 그의 이론비판이 정치비판의 우회로 였다면 그의 새로운 이론의 모색 또한, 직접적인 것은 여전히 아니지만, 정치적 활로의 모색이었다.

◇ 이론의 두재, 결핍, 희의주의를 극복할것으로 기대되는 계간지 '이론' 과 '문화과학'

그리고 그람씨의 시민사회론과 헤게모니전략의 유용성과 한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라클라우/무페의 급진적 민주주의 기획을 따르지 않고서도, 국민연합과 현재의 전국연합 등 1980년대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운동의 가장 주요한 형태들을, 여기서 상정할 수는 없지만, 고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라클라우/무페의 탈마르크스주의는 방법론의 측면에서 일단대주의의 등 흐름인 '탈' 구조주의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론 또는 구조주의이론의 해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담화구성체라는 독특한 이론틀 또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들에게 가장 특징적인 것은 '탈구조' 이후의 이론의 해체경향에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담화적인 것'들의 '접합'으로 이루어지는 '담화구성체'라는 독특한 (담화적) 세계를 구성한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는 또 하나의 '이론'인 한에서 그것은 분명히 실재적 대상이 아닌 관념적 또는 사유적 재구성물이다. 그러한 점에서 담화론접주의라는 비판, 관념론이라는 제라스의 비판은 정당하다.

탈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주의로부터 탈출하려는 이론의 경향이다. 그들은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자 한다. 그들의 진정한 출발점, 최초의 입각처는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탈마르크스주의는 '과학'으로 상정되는 모든 근대적 사유로부터 탈출하려는 '탈구조주의' 의 연장에 서 있다. 반면 급진적 민주주의 기획이라는 그들의 특이한 헤게모니전략은 분명히 자유주의의 변용이다.

적어도 순수이론 또는 방법론의 측면에서 라클라우/무페의 탈마르크스주의의 특징은 비트겐슈타인의 비판적 언어분석과, 실지어 후설의 현상학, 그리고 후기푸코에서 시작하는 탈구조주의와 그에 이어지는 데리다의 해체주의의 난해한 혼합지성들이다. 탈마르크스주의에 관한 논의를 라클라우/무페의 그것에서 시작하는 한, 우리는 탈구조주의의 방법과 담화구성체라는 그들의 독특한 이론적 지평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탈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은 그만 두고라도 그것에 대한 정당한 이해와 인용조차 불충분하며 지엽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 우리는 탈마르크스주의를 둘러싼 최근의 논쟁이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 매우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 탈 마르크스주의는 노동계급을 최고의 중심에 놓은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적 이론체계와 계급전략을 폐기하고 각 부문별, 지역별 운동을 수평적으로 접합시키는 급진적 민주주의의 헤게모니 전략을 제안한다.

맑스의 근본가정으로 설명 안되는 현상들을 상부구조에서 찾아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모순의 심화속 건재

들의 수평적 연대의 유용성과 한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라클라우/무페의 급진적 민주주의 기획을 따르지 않고서도, 국민연합과 현재의 전국연합 등 1980년대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운동의 가장 주요한 형태들을, 여기서 상정할 수는 없지만, 고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라클라우/무페의 탈마르크스주의는 방법론의 측면에서 일단대주의의 등 흐름인 '탈' 구조주의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론 또는 구조주의이론의 해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담화구성체라는 독특한 이론틀 또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들에게 가장 특징적인 것은 '탈구조' 이후의 이론의 해체경향에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담화적인 것'들의 '접합'으로 이루어지는 '담화구성체'라는 독특한 (담화적) 세계를 구성한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는 또 하나의 '이론'인 한에서 그것은 분명히 실재적 대상이 아닌 관념적 또는 사유적 재구성물이다. 그러한 점에서 담화론접주의라는 비판, 관념론이라는 제라스의 비판은 정당하다.

탈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주의로부터 탈출하려는 이론의 경향이다. 그들은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자 한다. 그들의 진정한 출발점, 최초의 입각처는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탈마르크스주의는 '과학'으로 상정되는 모든 근대적 사유로부터 탈출하려는 '탈구조주의' 의 연장에 서 있다. 반면 급진적 민주주의 기획이라는 그들의 특이한 헤게모니전략은 분명히 자유주의의 변용이다.

적어도 순수이론 또는 방법론의 측면에서 라클라우/무페의 탈마르크스주의의 특징은 비트겐슈타인의 비판적 언어분석과, 실지어 후설의 현상학, 그리고 후기푸코에서 시작하는 탈구조주의와 그에 이어지는 데리다의 해체주의의 난해한 혼합지성들이다. 탈마르크스주의에 관한 논의를 라클라우/무페의 그것에서 시작하는 한, 우리는 탈구조주의의 방법과 담화구성체라는 그들의 독특한 이론적 지평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탈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은 그만 두고라도 그것에 대한 정당한 이해와 인용조차 불충분하며 지엽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 우리는 탈마르크스주의를 둘러싼 최근의 논쟁이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 매우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진지전 개념은 전략적 의미만을 지녔던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의 시민사회는 권력이 실제로 쟁사되는 곳이었다. 시민사회가 혁명, 즉 마르크스주의의 해체모니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지라면 국가는 가시적 목표이다. 그리고 '자본론'의 재해석, 그리고 사회구성체론의 재구성을 통해서 알튀세르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의 역사적 사회구성체 안에서 서 정치의 영역이 갖는 중요성이었다. 그의 상대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역사적 사회구성체 안에서 모든 사회관계의 필수적인 재생산조건의 하나로서 정치 또는 그것의 집중적 형태로서 국가를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 연장선에서 알튀세르는 지배를 위한 국가 또는 권력의 이데올로기적 기제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한에서 알튀세르가 주목하는 학교는 부르가 계급화적으로 그 예시를 분석하는 '감옥'만큼이나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기제이다. ('국가는 항상 확장되어 왔다' -'제한된 이론으로서 마르크스주의').

20세기 중반 이후 계급 운동은 분명히 쇠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계급구조의 쇠퇴가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정책이 오히려 지배적인 20세기 후반에 자본주의적 계급구조와 그 모순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다. 상품의 다품종소량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포스트포디즘조차, 계급의 존재형태의 변화 또는 존재조건의 변화는 보여줄지언정, 자본제적 생산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조정이론은 자본주의적 계급구조와 그 모순의 심화 속에서도 그 지배력을 더해가고 있는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건재함을 역설적으로 보여 줄 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디어사회에서는 문화적 구성물 또는 미디어현실이 실제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보드릴아르의 언명을 통해, 라클라우/무페의 담화이론이 아니, 포스트주의 '담화이론'의 이론적 기여의 한 측면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을 전략적 지형의 하나로 포착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한번 더 강조하면서 알튀세르가 주목했던 교육체계만큼이나 중요하고 새로운 이데올로기 기제의 하나로서 미디어, 나아가서 문화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루코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적 이론들이 누락시키고 있는 미세한 권력기제들을 포착하는 데서 담화이론의 진정한 기여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람씨의 헤게모니이론,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이론의 발전인 한에서 그러할 것이다.

최근 진보적 사회과학계에는 이론의 과잉이라는 이유로 이론의 부재, 이론의 결핍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자배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론의 과잉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야 할 영역들에서의 이론의 결핍, 이론의 부재, 좀 더 솔직하고 말하자면 이론회의주의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론'과 '문화과학'의 창간이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유 동

〈 연대박사과정·정치학 〉

인간존중의 경영

「카페트 思考를 벗어버린 대청마루 思考」

럭키금성 기업문화 '脫'시리즈 - ②
금성 한국형 물걸레 청소기 개발편

脫
固·定·觀·念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한국형 신화'를 탄생시켰습니다.

럭키금성의 진취적인 기업문화가 창조적 결실로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형 물걸레 청소기— 고정된 사고를 벗어던지고 우리의 생활문화에서 찾아낸 새로운 극복의 지혜입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굴함이 없는 창조의 젊은 인재들— 럭키금성의 진취적인 기업문화속에서 시대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금성 한국형 물걸레 청소기 개발 주임 연구원 황 철
우리의 생활문화와 청소기를 정보화계 접목시킨 화제의 히트작 한국형 물걸레 청소기— 이 물걸레 청소기를 개발한 황철 연구원은 기존 청소기에 대한 고정된 사고를 거부한 유연한 창의 주인공이다. "세 척상은 하나이었고, 매일 같이 이것저것 바꿔보고 적용도 해보고, 그러다보니 세 번째이 걸레이자 되버렸어요." 연구와 다듬어 환경의 경험 또한 소중히 하는 그는 추진력있는 행동파 연구원이다.

럭키금성